

耘谷 元天錫의 紀行詩 探討

김원준*

- I. 序論
- II. 遊行中の 現實認識
 - 1. 愛民意識
 - 2. 消極的 現實對應
- III. 超世脫俗의 指向
 - 1. 超世歸隱
 - 2. 儒者的 仙境指向
 - 3. 禪趣의 霑潤
- VI. 重複 旅程地의 感應
 - 1. 興趣의 表出
 - 2. 憂國의 一環
 - 3. 寂寥의 旅情
- V. 結 論

【요 약】

본고는 운곡 원천석의 시문학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기행시를 대상으로 삼았다. 운곡은 원주에 살면서 모두 6차례의 유행을 했다. 연대순으로 구성된 『耘谷行錄』의 시들 가운데 기행시를 순차별로 나누어 시적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애민意識과 소극적 현실대응으로 볼 수 있는 운곡의 현실

* 영남대학교 국문과 강의전담객원교수

인식이다. 그의 애민 의식은 기존 애민시에 비해 사실성이나 꺾진 성에 있어 미약한데, 이는 유행의 시간적 제약성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을 수평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연민과 애상의 정을 부각했다. 다음으로 소극적 현실대응이다. 운곡의 유행은 소요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대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비판하기보다는 대상물에 의탁하여 현실에 접근하는 소극성을 보였다.

둘째, 超世歸隱, 儒者的 仙境指向, 禪趣의 霏潤으로 나타난 운곡의 超世脫俗의 의취이다. 그의 歸隱意識은 도연명, 안연, 상산 사호의 삶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歸隱을 지향했던 이유는 샅된 망발이 판을 치는 치욕의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의 선경 지향은 선경에 대한 호기심의 발동이며, 승경을 통한 흥취의 발로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선경지향은 항상 현실의 승경이 동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운곡의 禪趣指向은 淸淨, 寂靜, 空閑한 공간인 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는 청정의 맑은 공간 속에서 세사의 모든 혼동과 혼란, 욕심을 벗어 버리고 자연에 淸遊하고 자연과 함께 하고자 했다.

셋째, 중북 여정지에서 보인 다양한 감응을 興趣의 表出, 憂國의 一環, 寂寥의 旅情로 나누었다. 흥취의 표출은 경물과의 교유에서 이는 감흥으로 춘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담아 소담미와 한적미로 보여주었다. 우국의 일환은 여말의 혼란상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말의 혼란은 운곡으로 하여금 우국과 애상을 자아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順理의 治世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염원과 맞물려 있다. 寂寥의 旅情은 중북 여정지에서 이루어졌으며 客苦나 여정의 寂寥한 심사가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老境의 마지막 유행에서는 애수의 객정을 넘어 산수와 동화되어 閑寂의 정감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I. 序 論

耘谷 元天錫(1330~?)은 宗簿寺令을 역임한 아버지 元允迪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 天常은 진사를 지냈으며 동생인 天佑(子誠)는 현령을 역임하였다. 운곡의 부인은 원주 원씨로 宗簿令 元廣明의 여식이다. 슬하에 두 아들과 딸이 있으나 딸은 백일이 지나 죽었으며 장남 沚는 直長同正을 지냈고 차남 洞은 기천현감을 지냈다. 운곡의 沒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나 『耘谷詩史』에는 65(1394)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沈光世의 『海東樂府』의 기록을 보면, 태종(1400~1418)이 상왕 때 운곡과 만난 적이 있어¹⁾ 그의 沒은 80을 훨씬 상회한다. 그러나 李璽의 『松窩雜說』²⁾과 이익의 『星湖僊說』³⁾에 따르면 태종 즉위 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운곡이 살았던 여말선초는 신왕조의 참여나 현왕조에 대한 절의나 기로에서 저마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운곡은 20대 초반부터 은거⁴⁾에 뜻을 두고 살았기에 혼란한 세파에서도 선비의 입장을 견지하여 객관적으로 世事를 논할 수 있었다. 운곡

- 1) 沈光世, 『海東樂府』 “及爲上王 特命召致 天錫以白衣來謁 引入闕內 道故若平生歡 因召諸王子出見 問曰 我孫何如 天錫指光廟曰 此兒酷似乃祖 嗟須愛兄弟”
- 2) 李璽, 『松窩雜說』 “獻陵有時往來三陟也 及卽位駟問公之在否 其沒已久而公之子侗存焉 召至便殿 特授基川縣監 聖主不忘甘盤之舊如此”
- 3) 李璽, 『星浩僊說』 卷12 「人事門」 “元耘谷”, “세상에 전하기를 ‘원운곡 天錫이 雉巖山에 숨어 살 적에 태종이 친히 가서 방문했으나 피하고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태종이 즉위해서는 甘盤의 옛 정의로 역마를 달려 방문한 바, 그때는 운곡이 이미 사망한 뒤이므로, 그 아들 洞을 불러 특별히 基川縣監에 제수한 것이다.”
- 4) 『耘谷行錄』 권1 「題趙牧監幽居 二首」, 이 시는 辛卯年(1351년, 22세)에 지은 것으로 도연명을 본받아 은거의 自樂을 취하고자 하였다. 甲午年(1354년, 25세)에 지은 「寄題春州辛大學郊居」에도 名利와 榮辱을 버리고 釣魚靜坐하고 採藥에 뜻을 두고 있다. 운곡의 시는 이경진 역, 『耘谷元天錫詩史』를 참조하였다.

의 은거는 여말 杜門洞의 七十二賢이 마을의 문에 빗장을 걸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절의를 지킨 은자들과는 다르다. 그의 은거는 현실과의 단절이 아니라 현실과의 또 다른 내통이다. 이는 그의 시를 詩史라고 일컫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운곡 연구는 詠史詩에 드러난 현실인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⁵⁾되었다.

운곡의 시 연구가 현실인식에 비중한 둔 것은 그의 삶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인식은 仕宦을 통해 현실을 논단하는 것이 보다 거시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개 환로에 있는 경우, 그것도 조정에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실인식을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말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심했던 시기는 편 가르기에 빠져 자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가 마땅찮다. 환로는 오히려 올바른 현실인식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공리적이고 공허한 현실인식으로 그쳐버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운곡이 27세(1356년)에 국자감시에 합격하고도 원주로 돌아온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봉당 짓는 현실정치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원주로의 은거는 자연과 相和할 수 있고 사색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의 의리정신과 지조는 처사적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런 의식은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며 당시의 사실들을 흔들림 없이 토로할 수 있게 하였다.

운곡은 원주에 은거하면서 여러 차례 遊行을 했다. 주로 강원도 일대를 다녔지만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간 적이 있다. 상당한 시일을 두고 여행한 경우를 가린다면 6번⁶⁾ 정도가 된다. 『耘谷行錄』에

5) 김남기, 「원천석의 생애와 詩史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2, 태학사, 1996. 卞鍾鉉, 「元天錫 漢詩 研究」, 『한국한문학연구』25, 한국한문학회, 2000. 柳柱熙, 「元天錫의 생애와 현실인식」,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0. 崔光範, 「耘谷 元天錫 現實認識」, 『한국교육연구』10,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6) 유행 순차를 시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차 여정(辛卯 3월, 1351, 22세) : 橫川→葛豐驛→蒼峯驛→原壤驛→春州→原川驛. 2차 여정(甲午 10월, 1354, 25세) : 橫川→洪川→末訖村→馬奴驛→

수록된 시들은 연대순⁷⁾으로 되어 있어 그의 여정지를 시기별로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의는 유행 차순에 따라 지은 시를 통해 그의 시적 특징들을 고구하는 데 있다.

운곡의 기행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은 詩史的 觀點이 아닌 우리 주변의 모습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詩史라 불리는 그의 시 특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마치 仕任者들이 외임기 내지 방축기에 현실을 목도하고 난 후 이루어진 사실적 묘사를 그의 기행시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詩史的 觀點과는 다른 시각에서 그의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운곡의 기행시에는 여말 隱逸한 선비의 의식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기행시에 보인 隱逸性은 歸隱을 통한 유자적 면모, 사찰을 배경으로 한 禪趣의 霑潤, 승경과의 흥취에서 이는 仙界指向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운곡의 幽閑 속에 내재된 超世的 意識을 紀行詩를 통해 고찰한다.

紀行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적 경향이 觸物寓興이다. 촉물우흥의 시는 유행을 통해서 가장 폭넓게 볼 수 있는 내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논의와 중복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鄰蹄縣→瑞和縣→長陽(天磨嶺)→通浦縣→淮陽→交州(金城)→靑陽→方山→楊口. 3차 여정(戊申 3월, 1368, 39세) : 向春州→橫川→葛豐驛→蒼峯驛→沙勿洞→洪川→原壤→春州→淸平寺→梨嶺→圖通寺→麻田寺. 4차 여정(己酉 3월, 1369, 40세) : 向寧海→堤州→冷泉驛→竹嶺→順興→榮州→安東→寧海→貞信洞→寧德→酒登驛→丹陽→平海→蔚珍→龍化驛→三陟→平陵驛→羽溪→廣灘→旌善→碧坡嶺→芳林驛→安昌驛. 5차 여정(癸丑, 1373, 44세) : 狼川→金城→原川驛→母津→加平(自馬峴)→春城→春州(泉田村)→安堡驛→萬歲寺. 6차 여정 (56세) : 橫川→鐵原館, 北寬亭.

- 7) 朴東亮은 「耘谷行錄詩史序」에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原州에서 『耘谷集』을 얻어 이를 選抄하여 『詩史』1책을 만들고 그 序를 지었다고 한다. 운곡의 16대손인 元槩이 「耘谷先生事蹟錄後語」에서 家藏된 手稿本과 朴東亮의 『詩史』를 바탕으로 저자 手稿本의 次序와 같이 詩를 창작 시기 순으로 편집하였으며, 謄本에는 의심스런 부분이 있지만 상고할 길이 없어 포함하였기에 분량이 늘어 2책 3편을 3책 5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중복 여정지를 중심으로 운곡의 감응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에 국한하고자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논의는 기존 연구된 운곡의 시세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기행시를 가려서 운곡의 의식적 면모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遊行中の 現實認識

유행은 새로운 산천과 문물을 접하면서 경물이 가진 미적 측면을 자신의 심미감과 결부하여 그 흥취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유행은 현실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타지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낯선 대상들을 통해 평소 자신이 품고 있던 인식들을 구애 없이 토로하는 계기도 된다. 그런 점에서 기행시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평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다만 현실인식의 시들이 화자의 처지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왕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운곡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잣대는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愛民意識

운곡 기행시에서 애민의식이 드러난 시는 여섯 차례의 유행 중 둘째, 넷째, 다섯째에서 찾을 수 있으며, 2차에서 3수⁸⁾, 4차·5차에서 각각 1수⁹⁾씩 있다.

8) 권1, 「次洪川板上韻」, 「麟蹄縣」, 「十五日發方山到楊口~」.

9) 4차 유행 중에 쓴 「次春州拱北亭詩韻 二首(1)」(권1)는 春州의 승경을 바탕

대체적으로 한 작가가 애민의식을 드러낼 경우, 질곡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애민의식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고통 받는 삶의 현장을 톺진하게 묘사하는 것은 연민의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애민의식의 깊이를 질곡의 삶을 얼마만큼 톺진하게 드러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톺진성은 애민이라는 등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 비록 대상을 바라보는 애민적 시각이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시대와 현실적 상황,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운곡 애민의식의 질량을 민생고발의 톺진성 여하에 따라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행의 순차에 따라 생민의 삶과 연민의정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본다.

「麟蹄縣」

渡江穿嶺到鄉城 강 건너고 고개 넘어서 시골 마을 이르니,
四擁山中一野平 사방이 산으로 에워싸인 하나의 평야일세.
聞道水災田畝蕩 지난 물난리에 밭이랑 쓸렸다 들었더니,
行看樹杪海查橫 지나는 길에 나뭇가지에 걸린 뗏목을 보네.
人稀始覺多連戶 사람들이 드무니 달아난 집들 많음 알겠고,
地窄終難得盛名 땅이 좁으니 끝내 풍성한 이름 얻기 어렵겠네.
聖主深懷完護意 어진 군주께서 온전히 보호할 뜻을 품었으니,
吏民休復有愁情 아전과 백성들은 다시 시름의 정 품지 말게. (권1)

2차 유행 도중 인제에서 지은 시다. 인제는 사방이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골 물이 가로 세로로 흘러 내려 사람의 내왕이 쉽지 않은 험박한 곳이다. 수련은 인제의 형세를 말하고 있다. 강을 건너고 큰 고개를 넘어서야 비로소 洞府에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험박한 지세를 成倪은

으로 與民和樂하는 성세를 노래하고 있다. 5차, 권2 「自馬峴到加平」.

“나그네의 情狀은 시름과 병을 더 한다”¹⁰⁾고 했다. 함련은 지난 물난리의 잔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재로 인해 좁고 천박한 발마저 쓸려버렸다. 나뭇가지에 걸린 뗏목은 당시의 물난리 규모를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를 가늠케 하는 매개물이다.

경련은 민생의 험고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逋戶’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인제는 좁고 천박한 땅인지라 생민은 애초에 풍성함을 바라지 않고 소박한 삶을 꿈꾸었을 것이다. 비록 水災가 소박한 삶의 꿈마저 앗아갈지라도 생민은 삶의 터전을 쉽사리 버릴 수 없다. 그런데 고향을 등진 집이 많아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은 자연의 재해에 더해 苛政이란 人災가 더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련은 앞의 연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 백성들의 困窮과 流亡은 聖君의 護意로 위무될 수 있으니 백성들은 희망을 품길 바라는 것으로 맺고 있어, 일상화된 恩澤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를 공민왕이 원의 내정 간섭을 끊는 해(1354)와 연결하여 본다면 유자들이 상투적으로 읊조리는 亦君恩 내지 歸恩澤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자주성과 애민의 의지를 보였던 공민왕을 성군으로 인식하여 선정이 베풀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그런 점에서 그의 애민의식은 곧 고한 생민들의 삶을 수평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연민의 정과 희망을 불어넣은 것이다. 비록 백성에 대한 윤곡의 연민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피폐한 현실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연민의 정을 갈무

10) 『虛白堂詩集』卷之十 「次麟蹄軒韻」 “過橋官道遠, 林岫數人家. 地爽常留雪, 山深未有花. 棘簷寒雀鬪, 松樹晚風多. 旅況增愁疾, 支頤日易斜.”

11) 최광범은 “공민왕대(1352~1374)까지는 중앙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다만 권신들의 토지점병 등 가혹한 착취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유자라면 민생 도탄의 비판 대상을 권신, 세가들로 한정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명 ‘농민시’라고 하는 모든 시들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최광범, 「윤곡 원천석의 현실인식」, 『한문교육연구』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p.219.

리 하였으며, 군주를 통해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을 위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 지각에 의한 애민의 발로인 것이다.

다음 시는 양구에 도착하여 길 가는 이에게 민가가 쓰러져 가는 이유를 물어보고 들을 대답을 시화한 것으로, 쇠망해 가는 양구의 모습과 그에 따른 연민의 정을 드러냈다.

「十五日發方山到楊口〜」¹²⁾

破屋鳥相呼 무너진 집에서는 새들만 서로 부르고,
民逃吏亦無 주민은 달아나고 관리 또한 없구나.
每年加弊瘼 해마다 황폐하고 병들기만 더하니,
何日得歡娛 어느 날에나 기뻐하며 즐거워 할 수 있으리.
田屬權豪宅 논밭은 권문 호족의 집에 속해 버렸고,
門連暴虐徒 문에는 포악한 무리들만 줄 잇는구나.
子遺殊可惜 외로이 유리됨 더욱 애석하니,
辛苦竟何辜 이 고통 끝내 누구의 허물인가. (권1)

이 시는 상당히 긴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양구 백성들이 거처를 잃고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상황을 제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적 서사성은 양구에서 벌어진 상황의 도출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수련은 양구에 들어섰을 때 받은 전체적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운곡이 방산을 떠나 양구에 도착하니 양구 마을은 다 쓰러져 가서 온전한 형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퇴락해 있다. 그나마 온전하리라 여겼던 관아조차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목도한다. 그런 까닭에

12) 원제목은 다음과 같다. 「十五日發方山到楊口 郡吏民家戶欹斜倒地 寂無烟火 問諸行路答曰 此邑乃狼川郡之兼領官也 自古地窄田磽 民物凋殘 比來權勢之家 奪有其田土擾亂其人民 租稅至多 雖客足立鍾之地 無有空閑 每當冬月收租徵斂之輩 填門不已 一有不能則 高懸手足 加之以仗 剝及肌骨 居民不堪流移失所 故如斯也 予聞其語 作五言八句 以著衰亡之實云」

있어야 할 자리엔 그들을 대신해 새들만 서로 조용하고 있을 뿐이다. 근간이 무너진 자리엔 치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운곡이 2차 유행을 갔던 1354년은 旱災로 인해 금주령까지 내린 흉년이었다. 따라서 함련은 갈수록 弊廢되어 가는 양구의 상황을 걱정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백성들이 歡娛하는 시절은 더욱 요원하기만 하고 시련은 끝없이 이어질 듯한 생각에 歡娛의 자리는 상념과 탄식으로 대치된다.

수함련이 양구의 지세가 지닌 窄穽과 재해에 따른 민생 질곡의 차탄이라면, 경·미련은 인재에 의한 민생 질곡의 탄식을 보여 준다. 경련에서는 백성들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좁고 천박한 땅조차도 권세가들에 의해 빼앗기고 그나마 송곳만한 땅에 농사를 일구지만 그 또한 징령자들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 가혹한 세력은 백성의 고통으로 이어져 한 사람이라도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수족을 매달거나 형장을 벌여 살갓뼈를 헤지게 고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백성은 流移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가족과의 이별을 통한 流移는 원망의 심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운곡의 입장에서는 다만 안타깝고 가여울 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다. 마지못해 뱉어낼 수 있는 말이라곤 이 고통 누구의 허물인가하고 물을 뿐이다.

여타 애민시에 비해 遊行 중의 애민시는 궁핍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이고도 쫓진하게 묘사하지 못하였다.¹³⁾ 이는 遊行이라는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현장성을 실시간으로 재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지 드러난 사실만을 결과로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

13) 운곡의 시 가운데 재해와 착취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쫓진하게 묘사한 시는 「苦旱」(권2)으로 그의 나이 47세 지은 것이다. 권5에 수록된 「代民吟」은 세금과 부역 그리고 재해에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질곡의 삶을 사는 농민들의 심정을 진솔하게 집약했다.

실성은 아무래도 미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신 그 자리에는 遊行者의 연민과 애상이 부각되어 나타나 있다.

2. 消極的 現實對應

운곡의 시를 일러 후세 사람들은 詩史¹⁴⁾라 칭하고 있다. 운곡은 시대적 상황을 자신의 견문에 따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열했다. 그런 점에서 遊行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유행 중에 지은 운곡의 시에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입각한 비판력은 다소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애민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절곡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꿰뚫히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기행시에 보여준 운곡의 현실인식은, 현실과 역사에 대해 냉철한 객관인식이나 비판적 시각을 보인 詩史의 시들에 비해 상당히 미온적이다. 유행 중에 지은 시들은 소극적 비판, 현실에 대한 무력감, 처연한 심사와 같은 안이한 현실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의 소극적 현실대응을 시를 통해 살펴본다.

「初五日馬奴驛」

人間萬事豈無恒	세상사 모든 일이 어찌 항상됨이 없으리오,
名實相違世所憎	명실이 서로 어긋남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지.
役是奔馳隨駟騎	역이란 분주히 내달아 역마 타고 따르는 것뿐인데,
驛名端合馬奴稱	역 이름 마노라 칭하니 바로 그대로 이네. (권1)

이 시는 2차 유행 때 지은 것으로, ‘馬奴’라는 역명을 통해 ‘名’

14) “시사란 말은 시로 쓴 역사란 뜻이니, 그 본래 의미는 시인이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해서 시를 썼다는 말이 아니다. 시인 자신이 견문한 당시의 일을 시로 기록해둔 것이 뒷날 사료적 가치를 지니게 됨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즉 시를 읽으면 그 시대가 눈앞의 일처럼 낱낱이 펼쳐진다.” 정민, 『한시 미학 산책』, p.443.

과 ‘實’의 어긋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名은 실제의 손님이다.¹⁵⁾ 인간에게 있어 명분은 진실한 덕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實에 해당되며 변함없는 常道다. 그러나 名이 實과 어긋나면 名은 허명으로 세상에 누가 된다. 지금 운곡이 지나가는 馬奴驛은 역마가 쉼 없이 부지런히 달리는 이름 그대로이므로 名과 實이 부합된다. 따라서 운곡은 지금의 상황을 실에서 벗어난 허명의 시대로 보고, 마노역의 명칭을 통해 명실의 부합을 통한 常道를 바라고 있다.

「方山路上」

暫停歸騎久沈吟	돌아가는 말 잠깐 멈추고 길게 읊조리니,
桑柘煙村深復深	뽕나무 마을 연기 깊고도 깊어라.
雪意嬌多若飛絮	눈의 교태로움 날리는 버들개지 같고,
黑雲四合天陰陰	사방의 먹구름에 하늘이 컴컴하네. (권1)

이 시는 운곡이 강원도 일대를 유행(2차)하고 돌아오는 도중 方山縣을 지나는 길 위에서 자신의 심회를 읊조린 것이다. 강원도를 주유하고 고향 원주로 향하는 귀로는 바쁠 것 없는 여정이다. 그런 점에서 일견 이 시는 방산의 풍광을 노래하기 위한 긴 읊조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진 정경은 승경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당시를 바라보는 젊은 유자의 근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久沈吟’은 방산의 풍광에 따른 영탄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상념의 소리이다. 그것은 두터운 연기 속에 가려진 뽕나무 마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짙은 연기 속에 휘감긴 마을이 주변의 현실 상황을 드러냈다면, 허허로운 공간은 여말의 혼란성에 비유된다. 봄날, 버들개지가 날아 새로운 희망의 설레임을 바랐지만 실상은 눈[雪]의 교태로움으로 진실을 현혹시키는 무리이다. 그 무리들은 밝은 하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

15) 장자, 「逍遙遊」, “名乃實之賓也”, 이규보, 「釣名諷」, “名乃實之賓 有主賓自至 無實享虛名 適爲身所累”

금은 먹구름을 배경삼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있다.
시대적 혼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迎曦亭」

迎曦宜及曉頭來	해 맞으려면 의당 새벽에 왔어야지,
日午登臨意未當	한낮이 되어 올랐으니 의기가 맞지 않네.
但見波頭浮蜃氣	다만 물결 위에 뜬 신기루만 보고,
彷徨不覺已斜陽	방황하다 하마 해 기우는 것도 몰랐네. (권1)

이 詩는 시세와의 不합에 따른 운곡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다. 운곡이 「迎曦亭」을 지은 때는 4차 유행 중으로, 평해를 지나 울진에 이르러서다. 「迎曦亭」은 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은 정자다. 해맞이를 위해서는 새벽에 오르는 것이 마땅한데 한낮이 되어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낮이 되어서야 영희정에 오른 것은 여행 일정상 새벽에 오를 수 없었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운곡은 시간적 제약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의기가 맞지 않다(意未當)고 했다. 이 말을 통해서 운곡은 「迎曦」를 새롭게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迎曦」는 해를 맞이한다는 표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출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광명을 얻게 된다. 그런 점에서 밝은 세계로의 지향을 희원하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희정에서 일출을 보는 것은 밝은 세상을 바라는 작가의 심정인 것이다. 그런데 한낮에 누각을 오른 것은 「迎曦」에 대한 운곡 본래의 의도와는 상치된 것이다. 이는 운곡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비친 해는 한낱 신기루일 뿐이고, 방황하다 어느새 밝음을 잃은 석양이 되는 것이다. 밝은 세상, 즉 常道가 통하는 세상을 바라지만 常道는 어느새 빛을 다 해 서녘에 기울고 있다. 운곡은 혼동 속으로 기울어가는 당시의 정세를 안타까이 바라보며 정자의 이름대로 迎曦의 시대를 희원하고 있다.

이상의 시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운곡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시대적 사건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며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詩史라는 평을 받았던 운곡의 시들이 그의 유행 중에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방축이나 봉사를 통한 주유는 객관적이고 비판적 시각의 현실인식인 데 반해, 운곡은 이와 달리 소요유적 주유에 따른 현실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를 냉엄하게 바라보고 비판하기보다는 대상물에 의탁하여 현실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현실인식은 소극적 비판 내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超世脫俗의 指向

유행 중에 나타난 운곡의 超世脫俗에는 세 가지 의취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은거의 의취다. 顏回와 같은 安貧樂道의 청빈한 삶을 지향했고 은일한 陶淵明의 삶을 흠모했던 그였기에 은거의 의취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仙趣의 지향이다. 운곡의 선취지향은 無己와 坐忘을 통해 집착과 생사를 초월하려는 도가사상의 공감과 긍정에서 연유한다. 신선이나 선계를 통한 현실초탈적 삶의 반영은 4차 유행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셋째, 禪趣의 霑潤이다. 유학도를 자임한 운곡이지만 세속적 이익을 초탈한 승려들의 삶과 禪定의 세계를 경외하였다. 이와 같은 초세탈속적 지향의 시들이 유행 중에도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三敎一理의 인식과 탈속적 삶의 지향에서 찾을 수 있다.

1. 超世歸隱

陶淵明, 顏回, 商山 四皓의 삶을 흠모했던 운곡은 일찍부터 은거

의 뜻¹⁶⁾을 내비쳤다. 그의 시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자주 인용¹⁷⁾되는데, 이를 통해 그의 隱居之趣를 알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세사를 떨치고, 유자로서 수양에 힘쓰고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던 운곡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그의 기행시에 나타난 은거지향의 시들은 그의 나이 25세인 2차 유행부터 은거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의 은거지향은 이른 시기부터 마음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次通浦縣板上韻 二首」 淮陽刺史康永珣作重營記 二首 (2)

富貴無心石氏居	석승의 부귀도 마음에 없고,
文章不願馬相如	사마의 문장도 원치 않으리.
要尋山水清高處	다만 높은 산 맑은 물을 찾아가
更退閒遊學二疏	다시 한가로이 놀면서 이소를 배우리. (권1)

이 시는 2차 유행 중에 지었다. 금강산 長楊縣을 지나 통포현에서 관사[廈屋]의 중수가 있었는데, 이에 자사 강영순은 중수기를 썼고 운곡은 판상운에 차운했다. 운곡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의 富貴榮達과 名利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 무의미한 것이며, 정작 그가 바라는 것은 자연과 함께 하는 유유자적한 삶이다.

그는 晋代의 대부호였지만 결국에 살해당한 石崇을 예로 들어

16) 『耘谷行錄』卷1, 「題趙牧監幽居 二首」 “好山多處卜幽居 長笛高樓興有餘 每把酒樽花下醉 常尋藥圃雨中鋤 愛廬早效陶元亮 勉學曾傳董仲舒 靜捲疏簾無一事 松廊盡日臥看書 / 平生滋味在閑居 一枕清風午睡餘 愛月夜樓頻捲箔 養花春圃每携鋤 釣魚臺上溪雲散 送客亭前樹影舒 滿路蒼苔塵不到 半軒斜照映琴書”

17) 그들의 이름을 헤아릴 수 있는 시들을 살펴보면, 권1 「書懷寄趙牧監」,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 二十八首」 중 「行」, 권2 「夏日自詠」二首, 권4 「再用韻擬古」의 시에는 안희의 안빈낙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권1 「題趙牧監幽居 二首」, 권2 「夏日自詠」二首, 「次崔安乙所贈詩韻」, 「題三笑圖」에서는 도연명의 隱逸之趣를 볼 수 있고, 권2 「題四皓圖」, 권3 「四皓」에서는 절속한 상산의 은자를 드러냈다.

부귀의 덧없음을 말했고, ‘離騷再變’의 賦로 일컫는 아름다운 문장을 지었지만 부침의 삶을 살았던 사마상여도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닮고자 했던 인물은 知止常足할 줄 알고 與民同樂할 줄 아는 疏廣과 疏受¹⁸⁾였다. 그런데 ‘學二疏’하겠다는 운곡의 생각에 의문점이 간다. 운곡이 은연중에 태자의 사부로 환로에 있었던 二疏를 통해 출사의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시간상 2차 유행 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次李尙書所示詩韻」¹⁹⁾의 둘째 수 7,8구 “숲 아래 어찌 선비가 없으랴, 꿈마다 임 계신 데 찾고 있다오”가 운곡의 출사 의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유자의 行道는 修己를 통한 治人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자라면 누구나 젊은 시절 한 번쯤 출사를 생각할 것이다. 운곡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2차 유행을 떠난 후에 나타난 운곡의 지향의식은 은거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가 원하는 세계는 세속의 진애가 씻겨진 山高水淸의 경계로 그 곳에서 合自然하여 한가로이 노닐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의 한가로운 노닐과 相和 속에서의 ‘學二疏’는 常足할 줄 알고 與樂할 줄 아는 二疏의 정신을 배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운곡의 은거지향 의지는 다음 시에서 재확인 된다.

「寄題春州辛大學郊居」

不曾浪出世途艱 함부로 안 나감은 세상길 험난한 때문이니,
歸去來兮適意閑 벼슬 떠나 돌아온 곳 뜻에 맞아 한가롭네.
寄跡雲煙風月裏 구름의 자취를 밟고 풍월 속에 사노니,

18) 한나라 때 사람인 疏廣과 疏受 두 사람을 일컫는 말. 벼슬에서 물러날 때 하사 받은 금불이를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가 『蒙求』에 「二疏散金」이란 제목으로 나온다. 소수는 소광의 조카이다. 두산세계대백과, 「二疏散金」 참조.

19) 『松谷行錄』卷1, “林下豈無士 夢尋銀闕深”

無心榮辱利名間	영욕과 명리를 다 잊어버리겠네.
釣魚靜坐溪邊石	시냇가 돌 위에 가만히 앉아 낚시 드리우고,
採藥晴登屋上山	집 뒤의 푸른 산에 약초 캐러 가기도 하네.
若問箇中多野興	이 중에 소박한 흥취 많은가 묻는다면,
杖藜乘醉夕陽還	청려장 짚고 석양에 일근히 취해 돌아오네. (권1)

이 시는 2차 유행의 마지막 지점인 춘주의 辛大學 별장에서 지은 시이다. 은거의 흥취를 부러워했던 운곡²⁰⁾이 유행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隱居之向에 대한 이유와 의지를 밝히고 있다. 1,2구는 운곡이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가 은거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험난한 세상 탓 때문이다. 왕조의 말기가 빚어내는 무질서는 대내외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계의 혼란은 샅된 망발²¹⁾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으로 돌아와 한적의 맛을 즐기는 도연명의 귀거래가 시의적절한 태도로 본 것이다. 한적의 묘취는 세상사 영욕과 명리를 잊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자연 속에 묻혀 흥취를 즐기는 것이다. 낚시 드리우고 약초 캐며 보내는 자연 속에서의 삶은 무욕이며 물아일치의 세계인 것이다. 청려장 짚고 석양에 취해 돌아옴은 술에 취했다기보다 자연에 취해 자연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처럼 운곡은 험고의 세파를 모두 떨쳐버리고 자연과 함께 무욕의 삶을 지

20) 운곡이 첫 유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해(1351, 22세), 은거한 趙牧鑑을 방문하여 「題趙牧鑑幽居 二首」를 지었다. 운곡은 이 시를 통해 조목감을 산수전원을 사랑한 진나라 도연명과 3년 동안 바깥은 나가지 않고 독서만 전념한 한나라 동중서에 비겼다. 이는 조목감을 통해 자신의 은거지향을 대신한 것이다.

21) 권1, 「次家兄所示詩韻 四首」“(一) 從他謗亦任他欺 把火燒天却是癡 遠恥良謀難自辦 夜深危坐萬般思. (二) 早識蒼天不可欺 任他邪佞發狂癡 省躬識誠言堪託 爲報吾儕三復思” 宗簿寺令을 지냈던 先君께서 庸夫에게 억울한 비방을 받은 일을 가형의 시에 차운하여 적었다. 운곡은 이 시를 통해 샅된 망발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치욕에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결국 오호의 풍월을 염원하는 것으로 맺고 있다.

향하고 있다.

운곡의 歸隱意識은 도연명, 안연, 상산 사호의 삶에 영향을 받았다. 20대 초반의 이른 시기에 벌써 歸隱을 지향했던 이유는 샅된 망발이 판을 치는 치욕의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연으로 돌아와 한적의 맛을 즐긴 도연명은 그에게 삶의 방향성을 열어준 것이며, 물욕을 물리치고 安貧樂道한 삶을 살았던 안연을 통해 그의 삶의 지향점을 찾았던 것이다.

2. 儒者的 仙境指向

超世歸隱을 통해서 보여준 운곡의 삶은 무욕이며 자연과의 합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歸隱에 비친 운곡의 유자적 면모는 사회적 가치를 초월한 순수한 정신세계의 지향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은 그에게 있어 현실적 삶의 실천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유행 중에 나타난 운곡의 선경지향은 그의 삶의 실천적 공간에서 유리되어 현실과의 단절을 통한 선계로의 몰입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²²⁾ 이는 유행 중에 쓰여진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가 보여준 선경지향은 동경이며 자연 속에 이루어진 선경의 흥취를 토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선경에 대해 지향 이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선경을 淸新한 경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청신한 경계는 超世歸隱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운곡의 은일적 삶은 현실 정치로 나가지 않았기에 애초부터 世變에 휩쓸릴 일이 없었다. 세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적 곤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 없으며, 忘世하기 위한 피안의 세계를 찾을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승경이 있는 곳에는 운곡의 선경지향이 함께 하고 있다. 자신이 신선으로 화하는 일도

22) 김원준, 「지봉 이수광의 외임기 시양상」, 『배달말』38호, 배달말학회, 2006. p.201~204.

없고 천상계의 별천지를 바라지도 않는다. 자연이 선경이고 그 속의 자신이 신선인 것이다. 이는 隱逸者가 보인 선경지향의 또 다른 모습이다.

「登舟南江看水穴登倚風亭 二首」(1)

誰道塵凡隔上仙	누가 세속 책상물림은 신선과 떨어졌다 했나,
此來知有玉壺天	여기 오니 백옥의 병 안 하늘 있음 알겠네.
紅粧明媚水中水	진홍의 단장 밝고 고움은 물 속의 물이라,
醉臥蘭舟夢日邊	취해 목란 배에 누어 햇별 곁에 꿈꾸네. (권1)

이 시는 4차 유행 중 남강에서 지은 것이다. 맑은 남강의 정경을 배경으로 신기한 자연현상인 물구멍[水穴]²³⁾을 보고 이를 선경에 비겨 자신의 흥취를 드러냈다. 책상물림인 서생으로서 신선이 된다는 것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곳 남강 맑은 물 위에 배 띄워 놓고 수혈을 바라보노라니 수혈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지극히 깨끗한 선계로 인도하는 수로로 비친다. 붉은 봄꽃과 화창한 봄날의 어울림이 빚어낸 남강의 절경은 그 자체로도 선경을 연상케 하는데, 또 다른 물 속 세계로의 흥취는 선경의 동경을 자아내게 한다. 선경의 동경은 결국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따사로운 햇별 아래 술에 취하고 목란의 향기에 취해, 누운 배에서 수혈 속의 선계를 꿈꾸고 있다. 유행 중에 처음으로 선경지향을 드러낸 시는 지현에 올라 울릉도를 바라보며 지은 「登知峴望蔚陵」(권1)이 있다. 「登知峴望蔚陵」은 울릉산이 삼신산이 아닌가하는 선계 동경의 호기심의 발동일 뿐이지 선계로의 진입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시는 호기심을 넘어 선경의 흥취를 느끼고 선계의 꿈으로 전화하

23) 水穴에 대한 내용은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別集 16卷 「地理典故」 정선의 風穴에서 보인다. “太陰山の 바윗돌 사이에 있다. 그 아래에 얼음을 두면 여름이 지나도록 녹지 않는다. 또 물구멍이 있는데, 南江의 물이 여기에 이르러 나뉘어져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毛麻於村에 이르러 땅 위로 솟아 나온다.”

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次鐵原館北寬亭詩韻」

休將斗酒換涼州	말 술을 가지고 양주곡을 바꾸려 하지 말라,
到此聊堪滌世愁	이에 이르니 세상 근심 씻기에 넉넉하구나.
滿野稼雲年有稔	들 가득 이삭 구름에 올해는 풍년을 예감하고,
灑軒松吹夏凝秋	난간 씻기는 솔바람은 여름에도 가을을 담았네.
落霞流水塵情絕	지는 노을 흐르는 물에 세속 정이 끊기고,
靑草荒墟古意悠	푸른 풀 거친 폐허에 옛 뜻이 아득하구나.
逸興遠從天外起	뛰어난 흥취 멀리 하늘 밖을 따라 일어나니,
不須蓬島是仙遊	봉래도 필요 없이 이것이 신선 노름일세. (권2)

이 시는 마지막 유람이었던 6차 유행(56세) 도중 철원관 북관정에서 지은 것이다. 북관정은 철원군 철원읍 흥원리 북쪽에 자리한 정자다. 북관정 주위의 지세는 북쪽에는 높은 산이, 남쪽으로는 더 없이 넓은 철원평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지세 때문에 北寬이란 이름을 얻었다. 수련은 철원 북관정 주위의 정경을 예시하고 있다. 중국 서북 변경의 빼어난 풍치를 묘사한 涼州曲의 양주가 비록 좋다하나 북관정 주변의 정경만 못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의 풍치를 드러내는 데는 말 술이 필요 없는데 북관의 승경은 말 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경에 취해 말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어느새 세상사 모든 시름을 씻어내고 있다. 함련은 수련을 이어 난간 아래 펼쳐진 풍성한 계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드넓은 평야엔 이삭이 구름처럼 펼쳐져 계절의 풍성함과 함께 마음의 풍요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난간 사이로 불어오는 솔바람은 어느새 청신한 가을을 느끼게 하여 맑은 기운을 북돋우고 있다. 세속의 풍요와 청신이 경련에 와서는 세속의 정을 넘어서려 한다.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흐르는 물은 無心을 담고, 궁예의 옛 폐궁 터는 흥망성쇠의 세상사를 초탈하고 있다. 무심과 진세의 초탈은 미련에서 선적 경계의 넘나듦을 보여주고 있다. 북관정에서의 풍요로움과 청신미는 탈속

적 의취를 자아내고, 이는 속외의 흥취와 결부되어 仙遊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앞서의 시와 마찬가지로 운곡은 이 시에서도 선계를 현실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보여주는 선계는 현실세계의 또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운곡의 선경지향은 지향이며 동경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의 선경지향은 선경에 대한 호기심의 발동이며, 승경을 통한 흥취의 발로이다. 그런 점에서 운곡이 지향한 선경은 일반적인 유선 지향, 즉 도가의 영향을 받아 謫仙意識과 服藥을 통한 선경의 傲遊나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탈출 공간 내지는 脫世網을 통한 傲遊空間으로서의 선계가 아니다. 그의 선경지향에는 항상 현실의 승경이 동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그가 지향했던 선계는 현실의 단절 내지 극복이 아니라 현실세계를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3. 禪趣의 霑潤

은자적 삶을 살며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려 했던 운곡은 세속을 초탈하여 진리와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상인들과 일정 부분 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인과의 교유는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상인들의 공간인 산사 또한 운곡에게 있어서는 자주 노닐며 각성을 했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운곡은 유행 중에 사찰에 들러 可視의 세계에서 빚어지는 온갖 혼란과 모순을 벗어 버리고 禪定의 세계로 나아가거나 사찰이 주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세속에서 볼 수 없는 淸淨의 노닐을 즐겼다. 다음 시들을 통해 운곡의 禪趣指向을 살펴본다.

「遊圓通寺 二首」(1)

所見非塵世 보이는 것이 속세가 아니어서,

遊人眼更勞	노니는 사람의 눈 더욱 어지럽네.
入雲雙澗靜	구름에 든 두 갈래 시냇물은 고요하고,
撐漢四山高	은하수 받든 사방 산이 높구나.
冷淡隨僧格	차고 담담하게 스님의 격조를 따르니,
奔忙愧我曹	부질없이 바빴던 우리들이 부끄러워라.
忘機倚禪榻	잡념을 잊고 선방 자리에 기대어서,
覓句一揮毫	시구를 찾아 한 달음에 써 갈긴다. (권1)

이 시는 강원도 일대를 유람(3차)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통사에 놀러가서 이는 정회를 표현한 것이다. 수함련은 절을 둘러싼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운곡의 눈에 펼쳐진 원통사 주변의 경관은 이미 世俗의 티끌조차 범접할 수 없는 淸淨의 공간을 그려내고 있다. 눈 둘 때 없이 펼쳐진 준봉들과 구름 낀 산 사이로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들은 寂靜과 空閑의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적정과 공한의 세계는 경·미련으로 이어져 스님의 격조를 통해 자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자성은 세속을 벗은 청정의 자연 경관과 寂靜의 도량 속에서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스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圓通寺란 사찰명에서 말해주듯, 스님은 眞如의 理를 깨닫기 위한 수행을 정진하고 있다. 원만하고 방해됨이 없이 모든 존재에 작용하는 眞如의 理는 人間細事に 얽매어 부질없이 바빴던 자신을 반성케 한다. 自省은 空閑의 수행처에서 잠시나마 世事の 티끌을 털어내고 만유의 본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수도하는 스님의 禪定을 통해 세상사 모든 잡념을 씻고자 하는 운곡의 의식이 맞닿아 있다.

「宿萬歲寺」

烟深石逕紫苔封	안개 자욱한 돌길에는 푸른 이끼 덮였는데,
行到松門已暮鍾	걸고 걸어 솔 문에 이르니 저녁 종소리 찾아든다.
風動蕉鳴非世態	바람결에 울리는 파초 소리는 세상 자태 아니요,
霜摧木落變秋容	서리 맞아 떨어지는 낙엽은 가을 모습을 담았구나.

月樓禪鼓人來鼓 달빛 젖은 누각의 법고를 세인이 와서 두드리니,
 雪澗機春水自春 눈 녹은 냇가 물방아는 물이 절로 방아질일세.
 睡罷山童吹宿火 졸음에 겨운 동자승이 군불을 지피더니,
 一盂僧粥喜相從 한 바리 산사 죽이 기꺼이 따라 오는구나. (권2)

자욱한 안개, 돌길, 푸른 이끼와 같은 소재들을 제시하여 시작부터 범속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속계를 넘어 나아가니 소나무 一柱門이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고요 속에 깨침을 설파하듯 범종 소리가 잔잔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寂靜의 공간에 들어서니 파초를 흔들어 내는 바람소리조차 세속의 울림과 달라 이왕의 세속적 파초는 사라지고 없다. 세월을 재촉하는 서리에 나뭇잎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모든 물상들은 자연스럽게 절로 절로 흘러가고 있다. 인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청정의 신세계에 들어섰지만 세속의 진애를 모두 제거하진 못 했다. 법고는 속인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자 달빛 내린 고요한 누각에서 울리고 있다. 법고의 울림은 눈 녹은 산간 시냇물의 방아질과 어울려 천지간에 깨침의 소리로 울리고 있다. 사심도 욕심도 비운 자리에 들어선 깨침의 기쁨에 동자승의 모습이 더없이 천진하게 다가오고 있다. 법고의 각성에 깨어났지만 졸음에 겨워 군불을 지피는 동자승의 모습은 가벼운 미소를 드러내게 하지만 오히려 노스님의 圓寂 이상의 天真을 드러내고 있다.

운곡이 보여준 선취지향은 그 배경을 산사로 하고 있다. 산사는 세속의 티끌이 범접할 수 없는 淸淨, 寂靜, 空閑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운곡이 禪的境界에서 지향한 것은 스님처럼 圓寂이나 眞如의 이치를 깨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청정의 맑은 공간 속에서 세사의 모든 혼동과 혼란을 벗어 버리고 物化된 자아로 자연에 淸遊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VI. 重複 旅程地의 感應

운곡의 6차례 유행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까닭에 두 번 이상 중복된 여정지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감응을 보인 시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6차례 유행을 통해 나타난 중복지의 빈도수²⁴⁾를 살펴보면, 제목에 횡천이 들어간 시가 5제 6수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춘주가 4수, 갈풍, 창봉, 홍천, 원천이 각각 2수씩 있다. 이들 중복 기행지에 나타난 운곡의 시들은 대개 계절과 물상들의 조화에 따른 흥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행 次數, 출발과 귀로에 따른 감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문제 인식을 보인 시를 통해서 앞서 볼 수 없었던 운곡 의식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1. 興趣의 表出

일상적인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경물과의 조우는 흥취로 이어진다. 자연 대상에 자신의 흥취를 드러낸 여정은 1차, 3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처음 접하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경물의 흥취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기별로 볼 때 2차 유행도 처음 접하는 여정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많이 다루었기에 산수자연과의 조우에 따른 흥취를 찾기가 쉽지 않다. 1,3차 유행에서 접하는 경물을 통해 운곡은 어떻게 대상들을 형상화했으며, 대상들과의 결합을 통한 정취는 어떻게 표출

24) 횡천 : 「辛卯三月 向金剛山到橫川」(1차), 「甲午十月向淮陽到橫川次板上韻」, 「初四月發橫川 二首」(2차), 「宿橫川」(3차), 「七月橫川途中」(6차). 춘주 : 「春州」(1차), 「三月二十日向春州發行」(3차), 「春州」(3차), 「宿春州泉田村」(5차). 갈풍 : 「過葛豐驛」(1차) 「過葛豐驛」(3차). 창봉 : 「蒼峯驛路上」(1차) 「蒼峯驛」(3차). 홍천 : 「次洪川板上韻」(2차) 「過洪川」(3차). 원천 : 「原川驛」(1차) 「過原川驛」(5차).

했는지를 살펴본다.

「蒼峯驛路上」

左邊溪水右青山	왼 편은 시냇물, 오른 편은 푸른산,
考閱奇觀目不閒	괴이한 관물 살펴느라 눈은 한가하지 않네.
澗草巖花相映處	계곡물 풀과 바위 꽃이 서로 비치는 곳,
行裝如入畫圖間	나그네 마치 그림 사이로 드는 듯하네. (권1)

1차 유행 중 창봉역을 지나면서 지은 시이다. 좌우로 펼쳐진 푸른 내와 산은 그 빛깔만큼이나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²⁵⁾ 方剛한 청년시절의 생기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신선하고 새로운 경물들은 젊은 시인의 눈을 현혹하여 잠시도 제자리에 두질 않게 한다. 생동감 있게 드러난 1,2구는 다소곳한 澗草와 巖花의 조응에 의해 靜으로의 변환을 보여주고 있다. 靜으로의 변환은 畫中有人으로 자리를 바꾸어 물아의 합일로 나가고 있다. 물아의 합일은 다음의 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春州」

重來城郭似吾州	다시 온 춘주 마치 우리 고을 같아서,
滿眼江山是舊遊	눈 가득 강산은 옛날 놀았던 곳일세.
幸值芳菲三月暮	다행히 이 꽃다운 늦봄을 만났으니,
好憑花月解閑愁	꽃달에 기대어 한가로운 시름 풀기 좋아라. (권1)

『耘谷行錄』에 나오는 첫 수는 운곡이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 횡천에 이르러 지은 것이다. 1차 유행 중에 지은 「춘주」에서 ‘重來’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의 첫 유행은 이미 십대 후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정에서 이미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지역은 새

25) 3차 유행 중에 지은 「蒼峯驛」도 1차와 마찬가지로 푸른색을 기조로 하여 창봉의 정경을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푸른빛의 濃淡이 주는 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삼 정겨울 수 있다. 내가 사는 고을이 아니어도 마치 고향 같아, 눈 앞에 펼쳐진 정경이 예전의 감회와 어우러지게 된다. 늦은 봄 행어나 꽃놀이 놓칠까 안달했던 마음은 꽃향기 가득 머금은 정취에 젖게 된다. 상춘은 꽃, 달, 꽃내음이 어우러진 春夜로 이어져 막힌 시름을 서리서리 펼쳐 봄날의 정취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²⁶⁾

「過葛豐驛」

過盡長橋首屢回 긴 다리 다 지나며 머리 돌리기 몇 차례,
滿懷春思浩難裁 춘정의 회포 가득해 호연을 마름질하기 어려워라.
水邊細草飛黃蝶 물가의 가는 풀들에 노랑나비는 날아다니고,
樹樹閑花隔岸開 숲속의 한가로운 꽃들 언덕을 격해 피어있네.(권1)

3차 유행 중 「과갈풍역」의 감응은 1차 때와 유사한 춘흥²⁷⁾을 드러내고 있다. 봄날의 흥취는 시야를 한 곳에 못 박아 두질 않게 하고 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에 비친 春景의 변화로움은 누차 화자를 돌아보게 한다. 춘정은 가슴 가득 그림 없이 흘러 퍼져 흥취를 주체 할 수 없다. 춘흥의 고조는 3,4구에서 갈무리 짓고 있다. 물가의 가는 풀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노랑나비와 건너편 언덕 숲에 핀 꽃들을 통해 고조된 흥취는 다시금 관조의 정적미로 나가고 있다. 즉 시인의 눈에 비친 나풀거리는 나비는 나비의 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비를 둘러싼 봄날의 정경에 시각이 고정된 것이다. 이는 시인의 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忘我의 觀物이 되는 것이다. 망야의 관물은 언덕 너머의 한가로운 꽃과 결부되어 봄날의 閑寂美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26) 3차 유행 중에 지은 「春州」도 소양강을 배경으로 봄날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전개나 시상, 표현까지도 1차 때 지은 「春州」와 거의 유사하다.

27) 1차 때 지은 「過葛豐驛」도 유사한 흥취를 보인다. 강변의 드문 인적과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지천의 진달래를 대조시켜 봄날과 화락하는 시인의 소담한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시에서 보듯이 물상과의 교유에서 이는 흥취는 춘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꽃, 시냇물, 산, 풀, 달을 배경으로 하는 춘경을 운곡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소담한 미로 이끌어내기도 하고 고요한 한적미로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봄날의 정취를 통해 이상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물아합일의 경지로 나아가기도 한다. 모두 1,3차 유행에서 이루어진 위의 시들은 춘경과 결합된 운곡의 정취를 다양하게 드러냈다.

2. 憂國의 一環

6차례의 유행 중에 현실 문제를 드러낸 시는 2장에서 언급한 현실인식의 시를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 節에서도 운곡의 현실인식이 담겨져 있지만 우국에 대한 상념들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2장과는 구분된다. 유행 중 우국과 관련된 시들은 모두 2차에 이루어졌다. 2차 유행은 운곡의 나이 25세인 1354년이다. 운곡이 27세 되던 해 국자감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점을 고려한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출사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가 軍籍에 등록됨을 보고 군역을 면제 받기 위해 과거시험에 응시했다고는 하나 修己治人의 유자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출사에 대한 완전한 배제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차 유행은 현실적 갈등을 안고 떠난 여정으로 볼 수 있으며, 갈등은 혼란한 정세와 맞물려 우국의 상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甲午十月向淮陽到橫川次板上韻」

北寇難侵鴨綠東 북쪽 도적이 압록강의 동쪽을 침입하지 못했음은,
賴吾賢帥轉籌功 우리 현명하신 원수께서 계책을 운용하신 공이네.
近聞豆口妖烟起 요사이 두만강 어구에 요사한 연기가 인다 하니,
讀徹新詩憶二公 새로운 시를 읽다가 두 공을 기억하게 되네. (권1)

이 시는 2차 유행 때 횡천에서 지은 것으로,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차 때 횡천에서 지은 시는 유람이 주는 흥취와 벗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차 횡천에서 지은 시는 유람의 흥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혼란의 조짐을 인식한 운곡의 근심이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당시의 대외적 상황을 말하고 있다. 당시 원의 상황은 내란의 연속이었다. 홍건의 난이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켜 왕으로 칭하는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외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의 요인이 된다. 1107년 元帥 尹瓘과 副元帥 吳延寵이 여진을 정벌하고 九城을 축성한 덕분에 아직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음에 위안 삼고 있다. 비록 외침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요사한 연기가 변방에서 일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운곡은 변방의 이상한 징후가 혹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나라의 환란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初四日發橫川 二首」(2)

雲重風寒雪滿天	구름 겹겹이 바람은 차고 눈은 하늘에 가득해,
昏昏未可辨山川	어둡고 어두워 산천 경계를 구별할 수가 없네.
野田行見飢鳥噪	들 밭길을 가다 보니 주린 까마귀는 우짖어,
忽憶襄陽孟浩然	홀연히 양양 땅의 맹호연이 생각난다.(권1)

이 시는 初冬의 계절감이 여행 중의 애상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시가 단순히 나그네가 느끼는 계절적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의 국내적 상황에서 자신의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게 한다. 구름은 두텁게 쌓이고 차가운 삭풍이 이는 북방의 하늘에는 눈까지 내려 천지를 분간치 못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주린 까마귀의 우짖음은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레 하고 있다. 언표에는 북방의 을씨년스럽고 삭막한 계절감을 시인의 정서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

는 사위를 분간할 수 없는 초동의 날씨는 왕조 말기의 혼란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주린 까마귀의 우짇음은 궁핍한 우리네 살림살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결국에서 운곡은 맹호연을 떠올리는 것이다. 평소에 은거에 뜻을 둔 그로서는 현실을 떠나 산림 속에 은거한 맹호연을 통해 자신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혼란한 정국을 걱정하는 운곡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귀은 뿐임을 자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여행의 애상도 아니요 귀은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혼란한 현실을 걱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 대한 실의를 토로한 것이다.

중복 유행지에서 보인 운곡의 우국은 여말의 혼란상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말의 혼란은 운곡으로 하여금 애상과 우국을 자아내지만 우국의 일심은 혼란을 마감하고 순리의 시대로 바뀌길 바라는 염원²⁸⁾으로 이어지고 있다.

3. 寂寥의 旅情

여행은 새로운 경물들과의 만남이란 점에서 항상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일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여행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궁핍한 삶의 현장에서는 困苦한 생민들에 대한 연민으로 바뀔 수 있고, 같은 장소라도 자신의 처지와 여정 시간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흥취가 애수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에서 이는 客愁는 자신과 물경과의 교유에서 이는 애상감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哀愁의 客情도 시간의 흐름과 寂靜의 공간이 만나면 모

28) 권1, 「次洪川板上韻」 “上謝乾坤偶一吟, 居民聊喜順陽陰. 倚欄認得人家近, 機杼聲來隔一林.” 이 시는 順治의 군주가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운곡의 바람이다.

두 부질없는 집착이 된다. 한 번 이상 거쳤던 여정지를 통해 운곡의 旅情을 살펴본다.

「宿橫川」

旅館寥寥一夜遙	여관이 적적하니 한밤이 길기도 하여,
夢尋蓬島渡雲橋	꿈에 찾은 봉래섬에 구름다리 건너네.
覺來忽見東窓白	깨어나 홀연히 동녘 창 밝음 보니,
半破氷輪掛樹梢	반쯤 깨진 달바퀴 나무 가지 걸렸네.(권1)

3차 유행 때 지은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春夜다. 봄밤은 상춘 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지만 처지에 따라서는 애상을 배가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시는 봄날의 정경을 통한 흥취를 드러낸 1차 유행 때와는 사뭇 다른 감응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부터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을 깔고 있다. 봄날을 완상하기에 그지없이 좋은 밤이지만 오히려 고적한 여관은 나그네를 더욱 외톨토리로 만들고 있다. 길게만 느껴지는 외로운 밤을 잊기 위해 나그네는 꿈 속에서 봉래를 찾아 든다. 그러나 이는 곧 이어진 覺夢과 나뭇가지에 걸린 차가운 반달의 형용을 통해 寂寥한 자신의 심사를 부각시키고 있다.

「宿春州泉田村」

茅舍寥寥小似舟	초가집 쓸쓸하여 조각배인 듯 자그마해,
破窓無紙冷颼颼	찢긴 창은 종이가 없어 냉기 솔솔 스민다.
滴簷夜雨眠初覺	처마에 지는 밤 비에 졸음에서 막 깨어나니,
半壁靑燈照客愁	반 벽의 파란 등불이 나그네 시름 비추네. (권2)

5차 유행 중 춘주 어느 민가에서 하룻밤 유숙하면서 지은 시이다. 하룻밤 묵게 된 초가집이 마치 하늘을 이고 떠 있는 조각배처럼 험하다. 찢긴 창엔 덧보탬 종이가 없어 덩그러니 그대로이고, 냉기는 바람소리와 함께 찾아들고 있다. 궁색한 민가의 모습에 나

그네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밤 비 내린 처마에 방울져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듣고 화자는 선잠에서 깨어난다. 어차피 편치 않은 잠자리다. 긴 여정의 客苦도 그러하지만 곤궁한 살림살이가 마음을 더 옥죄는 것이다. 불편한 나그네의 심사를 반벽의 파란 등불이 대신하고 있다. 등불의 푸른 불빛은 초막 공간을 더욱 공허하고 차게 만든다. 텅 빈 벽면에 반을 드리운 청등의 찬 빛은 나그네로 하여금 시린 근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앞서의 시들은 모두 한 번 이상 거쳤던 여정지에서 지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새로운 물상들의 만남에서 이는 흥취는 앞선 여정에서 다루어졌고, 중복 여정지에서는 시적 화자의 寂寥한 심사를 주로 토로하였다. 나그네의 애수는 한밤 숙소를 배경으로 고적과 공허의 심사를 부각하여 중복지의 여정에서 이는 객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寂寥의 旅愁도 시간의 흐름과 寂靜의 공간이 만나면 모두 부질없는 집착이 된다. 老境의 마지막 유행에서 지은 「七月橫川途中」은 애수의 객정을 넘어 산수와 동화되어 閑寂의 정감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V. 結 論

운곡의 기존 연구는 詩史的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측면과 현실인식에 관점을 주로 다루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운곡의 기행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운곡은 원주에 살면서 6차례 유행을 하였다. 주로 강원도 일대를 다녔지만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다. 본고는 연대순으로 구성된 『耘谷行錄』의 시들 가운데 기행시를 순차별로 나누어 유행 중에 보여준 운곡의 시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첫째, 유행 중에 나타난 운곡의 현실인식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운곡의 현실인식을 애민의식과 소극적 현실대응으로 나누었다. 1)운곡의 애민의식이다. 애민의식의 질량을 기존의 애민시나 농민시가 보여준 민생고발의 꺾진성에 따라 가름한다면, 운곡의 시는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는 유행이라는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을 도출해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생민들의 삶을 수평적 시각으로 봄으로써 연민과 애상의 정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2)운곡의 현실적 대응이다. 시사라 불리는 그의 시가 유행 중에는 역사나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 의식도 심각한 현실 인식도 없다. 이는 소요유적 유행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행 중에 보인 그의 현실 대응은 냉철한 시각이나 비판보다는 대상물에 의탁하여 현실에 접근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현실 대응은 소극적 비판 내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흘러 버렸다.

둘째, 유행 중에 보인 운곡의 초세탈속적 의취를 살펴보았다. 운곡의 초세탈속적 의취는 초세귀은, 유자적 선정지향, 선취지향의 세 방향으로 나타난다. 1)운곡의 歸隱意識은 도연명, 안연, 상산 사호의 삶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 이유는 샅된 망발이 판을 치는 치욕의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운곡은 귀은을 통해 명리와 이욕을 물리치고 한적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 2)운곡의 유자적 선정지향은 선경에 대한 호기심의 발동이며, 승경을 통한 흥취의 발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道家的 仙境의 傲遊나 脫世網의 傲遊空間으로서 선계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의 선계지향에는 항상 현실의 승경이 동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그가 지향했던 선계는 현실의 단절 내지 극복이 아니라 현실세계가 선계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3)운곡이 보여준 선취지향은 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산사는 세속의 티끌이 범접할 수 없는 淸淨, 寂靜, 空閑의 공간이다. 그는 청정의 맑은 공간 속에서 세사의 모든 혼동과 혼란, 욕심을 벗어 버리고 物化된

자아로 자연에 淸遊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셋째, 중북 여정지에서 보인 다양한 감응을 살펴보았다. 6차례의 유행 중 중복된 장소에서 보여준 운곡의 감응을 興趣의 表出, 憂國의 一環, 寂寥의 旅情로 나누었다. 1)흥취의 표출은 경물과의 교유에 따른 운곡의 감흥이다. 물상과의 교유에서 감발한 흥취는 춘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운곡은 꽃, 시냇물, 산, 풀, 달을 배경으로 하는 춘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담아 소담미와 한적미로 보여주었다. 또한 봄날의 정취를 통해 이상향이나 물아합일의 경지로 나아가기도 했다. 2)중북 여정지에서 보인 운곡의 우국은 여말의 혼란상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말의 혼란은 운곡으로 하여금 우국과 애상을 자아내게 하고 이는 順理의 治世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염원과 맞물려 있다. 3)중북 여정지에서 보인 寂寥의 旅情은 모두 한번 이상 거쳤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앞선 여정에서 보인 흥취를 대신해서 客苦나 여정의 寂寥한 심사가 부각된 때문이다. 나그네의 애수는 한밤 숙소를 배경으로 고적과 공허의 심사를 부각하여 중북 여정지에서 이는 객정을 앞서의 유행 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제어(Key words) : 현실인식(life as a recluse),
선경지향(inclination to utopia),
우국(concern for the country),
소극적 현실인식(passive correspondence to the real),
흥취(expressions of delights), 귀은(life as a recluse)

참고문헌

『耘谷行錄』, 『韓國文集叢刊』6. 民族文化推進會.
『耘谷元天錫詩史』, 이경진 역, 원주시중앙중친회, 1997.

- 『大東野乘』(國譯)2, 14,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71.
- 林鍾旭, 『耘谷 元天錫과 그의 文學』, 태학사, 1998.
- 정 민, 『한시 미학 산책』, 솔, 1996.
- 崔光範, 「耘谷 元天錫 漢詩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金南基, 「元天錫의 生涯와 詩史研究」, 『한국한시작가연구』2, 1996. p. 287~288.
- 김원준, 「芝峰 李睟光의 外任期 詩樣相」, 『배달말』38호, 배달말학회, 2006. p.201~204.
- 남궁원, 「元天錫의 불교시에 관한 소고-禪的 취향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5. p.98.
- 都賢喆, 「元天錫의 顔回的 君子觀과 儒佛道 三教一理論」, 『동방학지』 11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p.64.
- 卞種鉉, 「元天錫 漢詩研究」, 『한국한문학연구』25집. 한국한문학회, 2000. p.9.
- 원용문, 「耘谷 元天錫論」,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학회, 2001. p.27~28.
- 이애희, 「운곡원천석의 절의정신과 경세관」, 『강원사학』19-20집, 2004. p.59.
- 李仁在, 「高麗末 元天錫의 生涯와 社會思想」, 『韓國思想史學』14집, 1999. p.55~56.
- 이정화, 「耘谷 元天錫의 贈僧詩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p.42.
- 이종묵, 「조선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6집, 한국한시학회, 1998. p.30.
- 임종욱, 「운곡 원천석의 자연시에 나타난 미의식」, 『한국문학연구』2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0. p.21~23.
- 崔光範, 「耘谷 元天錫 現實認識」, 『한문교육연구』10,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p.219.

Study on Travel Poetry of Woon-gok, Won Cheon-seok

Kim, Won-Jun

In this study, travel poetry was focused on, which has been rather neglected in study of Woon-gok's poetry. Woon-gok had traveled six times totally in his life, whereas he lived in Won-joo. His travel poetry is classified in successive order among poetry of "Woon Gok Haeng Rok(耘谷行錄)", which is composed in chronological order, and poetic characteristics of Woon-gok were sought.

First, his recognition of the real was characterized as both his love for people and his passive correspondence to the real. His love for people was feeble in reality compared to other people-loving poetry, due to limitations of time in travels. However, he emphasized his sympathy as he approached the lives of people in horizontal view. And his passive correspondence to the real was appeared for he traveled for sightseeing mainly and he approached the real, focusing on the object rather than criticizing dispassionately the real.

Second, his willing to transcend the real world appeared with three thoughts; life as a recluse, inclination to utopia as a Confucian scholar, and whole selflessness. His recluseness was affected by lives of Do Yeon-myung, Ahn Yeon, Sang-san Saho, and he wished to free himself from the real world of disgrace which was full of meaningless and harmful criticism. His inclination to utopia was motivated by his curiosity for utopia, and appeared as his interest for beautiful scenery during his travel. It is very interesting that his inclination to utopia was always accompanied with beautiful scenery of real world. His whole selflessness appeared with background of clean and peaceful temple in mountains. He wished to amuse himself in nature and be in harmony with nature, giving up all of confusion, disorder, and greed in the matters of real world.

Third, his various responses for the same places are classified as three;

expressions of delights, concern for the country, sorrow and dealing with it. Expressions of delights were the feeling of being with objects in the sightseeing, and he showed the scenery of season spring with tasty looking image and restful image. His concern for the country was connected to chaos state of last days of Korea dynasty. Chaos state made him sorrowful with concern, but engaged with his hope for the reasonable rule. He dealt with his sorrow in repeated place during travel and showed grief of traveler. In his last travel as old traveler, he overcame the grief of traveler to the restful and peaceful feeling in harmony with beautiful scenery.

김원준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담객원교수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53-810-2110

전자우편: kimwj1004@dreamwiz.com

이 논문은	2007년 4월 28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